

2026 6평 국어 분석

【요약】 수능국어연구에서는 5가지 관계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선지에 어떤 기믹이 쓰였는지 설명한다. 기믹이란 주로 관심을 끌거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 또는 아이디어를 뜻하는데, 출제 측면에서 출제자의 상술, 함정 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라 생각한다. 또한 기출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출제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탐색한다. 텍스트만으로 표상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도식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주요어】 type-of, part-of, date-of, cause-of, instance-of

1. 세 가지 법 모델과 임대차 계약

본 세트는 자유와 법의 이항대립이 지문과 문항의 처음부터 끝을 지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훌륭한 셋업을 가지고 있다. 상세해설 보다는 출제자의 생각이 셋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설명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A]에서 “당위만 남는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천철학에서는 규범과 능력을 구분하고 규범의 요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즉, 규범적 요구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규범은 수행 가능한 행위만을 요구할진대, 수행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당위만 남게 되는 셈이다.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의 자유//법률이 (나)에 연결되는 모습이다. 또한 (나)의 2문단과 3문단은 문단 간 이항대립을 이루고 있다.

2문단: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3문단: 주택이나 상가 임대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구분된 범주 내 보충도식과 data-of는 7번 문항의 설계도로 쓰였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㉗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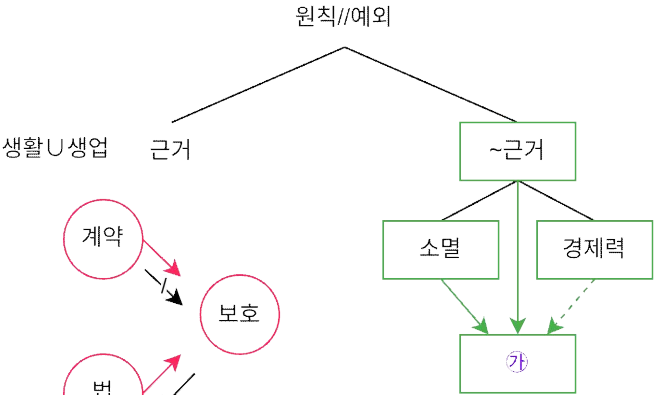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¹⁾

7번 문항은 ①과 ④가 경쟁선지를 이루는데, 실전적으로는 {임대차 종료 후}와 {임대차 기간→ 임대차 종료 전}이 구별되어 ①을 제낄 수 있다. 그런데 난 이 설계도를 뜯어보고자 한다. 먼저 {법} 계약은 근거가 있음에 해당하므로 {법<계약}은 근거가 없음에 해당할 것이다. 전자라면 임차인 보호 목적은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법이 필요하다. 반면 후자는 계약만으로 임차인 보호가 실현되기 때문에 법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이항대립을 이루는 보충도식이다. 한편 출제자는 권리가 소멸한 것과 경제력이 충분한 것을 선언으로 연결하고 그에 대한 인스턴스로 ㉗을 제시한다. ㉗의 논의영역은 {임대차 종료 후}이므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

¹⁾ 생활과 생업은 구분된다. 그렇기에 나같이 더러운 출제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로 선지를 구성할 수 있다.

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선택지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선언 조건 중 다른 것인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가 제시되었는데, 이 또한 ㉠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다시피 임대차 기간은 ㉠의 논의영역에서 이탈하여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로 간주하든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로 간주하든 그 공통전제인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은 언제나 ㉠의 이유가 된다.



〈그림 1〉 보증도식과 data-of

한편 <보기>의 A와 B는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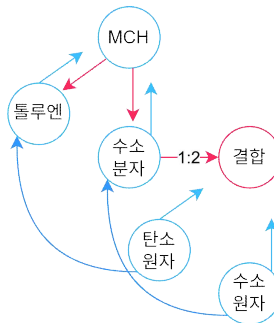
A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B는 그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을은 어느 경우든 갑에게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2. 수소 에너지

수소분자가 수소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배경지식이다. 하지만 배경지식이 없어도 지문으로부터 이 사실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능에는 이것이 더 복잡해지거나 포장지로 감싸질 것이기 때문에 답하게 분석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④ ㉠은 ㉡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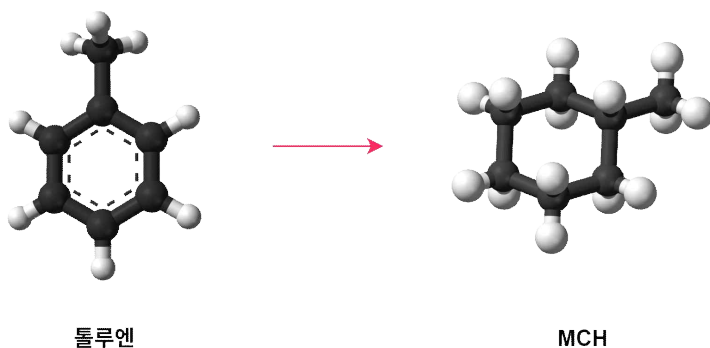


〈그림 2〉 part-of와 비율

<그림 2>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탄소는 톨루엔이 가지고 있다.
2. 수소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3. 톨루엔과 MCH는 최소 6개 이상의 탄소 원자가 포함된다.²⁾

수소 분자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 결합을 만드는 것이다. 톨루엔과 수소 분자가 MCH를 형성하므로 탄소 원자의 존재는 톨루엔으로부터 기원한다(1). 다음으로 수소 분자 하나당 탄소와 수소 원자 간 결합을 두 개씩 만든다. 따라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를 구성한다(2). 마지막으로 MCH 분자 하나당 세 개의 수소분자가 필요하므로 톨루엔과 MCH에는 최소 6개의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3). 시각적인 자료없이 입체구조를 텍스트로 설명하는 일을 어렵다.



<그림 3> 시각자료 | 회색: 수소 원자, 검색: 탄소 원자

²⁾ 마찬가지로 사악한 출제자가 이 결론을 선지로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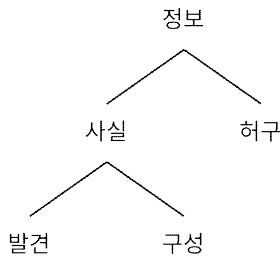
3.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

수소 에너지 세트가 지문 셋업이 부실한 것이 문제라면 이 세트는 지문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기>만으로 17번 문항이 풀리는 문제가 있다. 해당 문항의 ②을 보듯이, 이 선택지는 그 가시성이 너무나 선명하다. 한편 15번 문항에 갖든 주요 범주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다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③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④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이다.



<그림 4> 어휘망